

原油가격 하락과 유럽의 精油産業

大韓石油協會 調査課

1. 今年 상반기에 收益好轉

유럽精油産業은 금년 상반기에 지난 20년중 최대의 이윤을 향유하였다. 下流部門의 수익에 의해 통합회사(Integrated Company)들은 上流部門의 큰 損失을 상쇄시켰다. 그러나, 86년 하반기 하류부문의 수익전망은 불투명하다. 原油의 Netback가격판매에 따른 원유가격 상승과 제품在庫增加 때문에 하류부문에서 새로운 경쟁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그 결과 同분야의 수익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분석된다.

原油價의 급격한 하락에 비해 제품가격을 인하하기까지는 時差가 있게 마련이므로 이로 인해 '86상반기 동안 同분야에서 큰 수익이 실현될 수 있었다. IEA(국제에너지機構)의 통계를 보면 지난달 北海 Brent원유의 Spot 가격은 9 \$/B, 北西유럽基準 同원유제품가격은 12.36 \$/B로서 85말년 이래 원유가격은 66%, 제품가격은 57% 하락되었다. 원유가격은 폭락을 거듭하여 지난 1월 20\$/B, 3월에는 15\$/B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제품가격은 지난 3월이나 7월에 原油價인하 수준까지 비슷하게 하락하지는 않았다. (위의 모든 數値는 月末基準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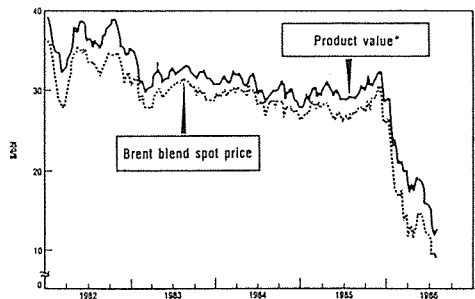
upgrade시설을 갖춘 유럽정유사들의 평균精製利潤은86년 1/4분기에 3.90\$/B, 2/4분기에 4.70\$/B를 기록했다. 또한 런던의 中介業者인 Scrimgeour Vickers & Co.의 통계를 보면 위와같은 기준으로 算出한 A-L 원유의 마진은 1/4분기 0.61\$/B에 비해 2/4분기에는 2.64\$/B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8월초 OPEC총회 이후 油價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정유업자의 이윤도 침식되고 있다.

유럽의 정유산업은 그 基盤이 튼튼한 편이다. 대규모 정유사의 정제시설 감축문제는 대부분 완결되었거나 정리중에 있으며, 현재의 시설초과상태는 국제적으로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 같다. 시설감축및 개편으로 인해 統合석유회사들은 지난 상반기에 상당한 수익을 보았는바, 시설감축은 필연적이었다. 종래에 석유회사들은 精油부문및 販賣부문의 손실을 상류부문의 수익으로 보전하였으나 현재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형편이다. 궁극적으로 Netback原油를 다루는 정유회사의 정책이란 이윤産出부문인 하류부문의 이익이 상류부문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정유회사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는 대다수 OPEC 원유의 Netback가격시스템은 현 제품시장 市況을 고려하지 않

서유럽의 원유및 제품가격 하락추이



* : 서유럽의 대표적인 촉매분해시설을 갖춘 정유회사의 수출을 기준으로 산정.

고 원유처리량을 증대시켰다. 그 결과, 석유제품在庫가 증가하였고, 소비자가격의 급격한 하락현상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 정유회사는 Netback시스템에 兩面的인 태도를 갖고있다. 즉, 同시스템에 의한 마진을 選好하지만, 과잉생산에 따른 불이익은 꺼려하는 것이다. 오는 10월 OPEC 石油相회의가 개최될 때 Netback의 향후 전망에 대한 문제가 토의된다. 그러나 어느 석유회사 重役은 Netback시스템의 除去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만일 Netback시스템이 없다면 OPEC은 Price Differential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OPEC회원국들은 현재 당면해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놓아둔 채 원유 油種間 價格差와 같은 문제에 부딪치기를 꺼려하고 있다.

2. 下流部門에서의 새로운 變化

今年 1월의 원유가격붕괴 이전부터 유럽의 하류부문 특히 精油部門에서는 이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하류부문 전체로서는 85년 3/4분기부터 큰 변화가 있었는데, 原油價가 28~30\$/B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동안의 이윤은 낮은 수준이 아니었다.

지난 10년동안 유럽 정유회사들은 석유제품 수요감소로 인해 큰 고통을 받는 한편, 遊休精製施設이 늘어났다. 판매분야에서는 더 많이 팔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이러한 추세에서 판매수입이 저조해 짐에 따라 큰 고통을 겪었다. 그 10년동안 統合석유회사의 하류부문도 재정적 어려움을 면치 못했다. 하류부문 전체로 볼때 약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그리고, 원유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대규모의 在庫損失을 감수할수 밖에 없었다. 한 석유회사의 幹部는, 현재 모든 유럽 정유회사및 판매 회사들이 거의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으며 과거의 在庫損失을 상쇄하기 위해서 현재와 같은 수준의 마진이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재고손실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경우 정유회사들은 경쟁적인 市況을 이용하여 그 부담을 최대한 감소시키고저 할 것이다.

3. 정유부문의 효율화

86년에 들어서 정유부문의 변화는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나타났는데 超過施設의 폐쇄및 精油設備 高度化

투자에 따른 이익이 처음으로 발생한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약 1억5000만톤/년 가량의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操業中止는 83년부터 85년 사이에 일어났다. 또한 유럽의 정유회사들은 85년과 86년 상반기에 계속된 달라가치의 약세로 말미암아 적지않은 이익을 보았다. Conoco社의 유럽지역 정유및 판매부문 부사장인 Kent Bowden씨는 올 상반기의 이익이 “내 생애 가장 높은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같이 높은 이윤은 지금 하반기에는 사라졌으며 향후 또다시 나타나지 못할 것이 틀림없다”고 전망한다.

Conoco社의 가장 큰 시장인 英國에서 同社는 휘발유가격이 인상되기 전까지는 석유제품들을 원가이하의 가격으로 최근까지 판매하였다. Conoco社는 유럽에서 가장 활동적인 휘발유 판매사중의 하나이다. 同社는 英國의 Humber지역에서 35,000b/d규모의 分解設備로 생산개시하였으나, 同시설은 유럽지역에서 가장 높은 이윤을 주는 processing unit로 알려져 있다.

Bowden씨는 이윤증가로 말미암아 좀더 많은 자금이 투자에 유입될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그 투자의 대부분은 지난 날 별로 자금을 투입하지 않던 注油所개량작업이나 이미지 개선작업등에 사용될 것이라 한다. 최근 서독, 네덜란드 및 덴마크등에서 새로운 揮發油 판매망을 구축한 Conoco사는 신규사업에 대한 기회를 계속 포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Bowden씨는 Conoco社가 확장을 위한 확장은 하지 않는다고 말해 下流部門사업에 대한 견해를 표명했다. “우리는 資本의 효율성을 더 높이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는 강조한다.

4. 無鉛가솔린 및 輕油의 黃分문제

1989년 중반부터 유럽全域에 유통될 無鉛휘발유의 생산을 위해 정유회사들의 대규모 투자가 진전됨에 따라 정유부문의 수익이 호전되었다. 無鉛휘발유는 현재 특정한 판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産業資料」에 의하면 無鉛휘발유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26억내지 29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투자의 대부분은 Reforming plant (改質裝置) 건설에 사용될 것이다.

한편 유럽의 정유회사들은 輕油의 硫黃함유량을 0.3重量%, 특정지역에서는 0.2重量%까지 낮추어야 하는 문제

에 직면하고 있다. 硫黃함유량 감축提案은 EC(European Community)가 하였으나 구체적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特定地域에 0.2重量%의 경유를 공급해야 하는 회사들은 또다른 추가투자를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특정국가에서의 租稅제도가 디젤用 차량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킨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면 디젤燃料의 질, 특히 세탄(Cetane)價나 연료의 조밀도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모든 회사들은 장기수요 전망에 따른 價格下落효과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인하에 따라 소비가 증대된다고 기대할만한 것도 없다. 西獨에서 최근 경유소비량이 갑자기 증가했는데, 이는 현재의 싼 가격을 이용, 5~6 개월 앞서서 末年 겨울용 비축을 하였기 때문이다.

西獨이나 이탈리아의 鐵鋼, 시멘트 및 電力분야에서 重質油수요는 큰 진척이 없었다. 다만 二重燃料 전환시설에서는 석탄연료가 石油로 轉換되었는데, 이러한 시설은 석유가격이 높아지면 또다시 석탄연료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낙관적인 예상은 유럽에서의 重質油소비 急減 추세가 점점 완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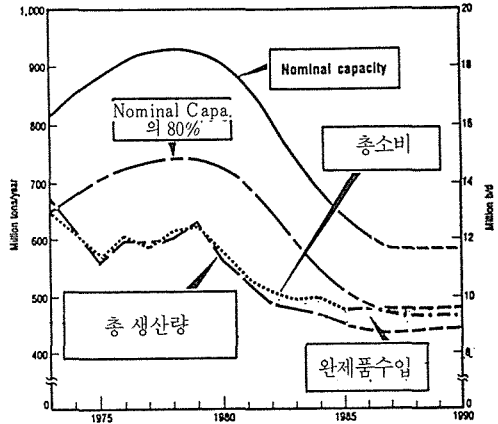
5. 精油施設의 감축결과

대규모 정유회사나 판매회사들은 유럽의 精油施設 폐쇄 계획이 거의 완결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현재 高度化 시설을 갖춘 unit들은 능력의 80% 이상을 가동하고 있으며, 기타 다른 unit도 완전가동되고 있다.

英國과 西獨에서는 기본정제공정(basic processing unit)뿐만 아니라 高度化 시설을 갖춘 공장도 오래 된 것은 폐쇄하였다. Conoco社의 Bowden씨는 유럽 精油施設 감축문제는 거의 다 끝났다고 믿는 사람중의 하나인데, 아직도 약간은 超過된 상태이지만 그런 정도는 항상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본다. Mobil社의 국제판매 및 정유부 문 부사장인 Robert O.Swanson씨의 견해도 그러하다.

Mobil社는 유럽전체의 45%에 해당하는 정제시설을 감축시켰다. Mobil社는 네덜란드, 西獨 및 이탈리아에 소재한 정유공장의 조업을 벌써 중지하였으며 프랑스내 공장들도 현재 시설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잔존하는 정제시설들은 90% 이상의 가동율을 보이며 시설 高度化 unit에서는 100% 가동되고 있다. 또한 벨기에의 An-

서유럽의 정제능력 감소추이



(자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twerp에 있는 2개의 정유공장 및 이탈리아의 Trieste에 있는 1개의 정유회사가 유럽지역의 정제능력 好轉에 따라, 이를 탐낸 독립系회사(Independent)에게 買收되었다. 그러나, 그이외의 다른 정유공장들이 판매되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原油價 상승 및 利潤減少 전망에 따라 석유부문에 대한 여러가지 계획들이 無散될 처지에 놓였다고 「산업자료」는 밝히고 있다.

6. 지역별 정유능력 조정현황

EC통계에 의하면 12개 회원국의 1985년말 精油능력 은 6억1,500만톤/년이다. 이 정제능력의 80% 활용을 가정할 때 잉여정제능력은 5,000만톤/년 이상에 달한다. 1985년 한해에 약 4,000만톤/년 가량의 정제시설이 폐쇄되었다. 위의 초과정제시설은 가동율이 80% 이상인 英國, 西獨 및 덴마크와 같이 시설용량이 적절한 국가들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EC의 초과능력을 말한다. 기타 EC회원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및 포르투갈등인데, 그중 룩셈부르크는 精油施設이 없는 나라이다.

西獨에서는 1985년 1,600만톤/년에 달하는 4개의 정유공장이 폐쇄되어 총정제능력이 8,810만톤/년으로 감소 되었었다. 올해추가로 780만톤/년의 폐쇄가 계획되

어 있으나 ESSO AG社가 西獨内の Hamburg 정유공장을 Coastal corp (Houston)에 매각하면 올해 정유시설 폐쇄는 230만톤으로 감소된다.

英國의 精油能力은 지난해 9,910만톤/년에서 8,760만톤/년으로 떨어졌으며 추가적인 감축계획은 없다. 현 정제능력의 부분적인 감소에 따라 1980년대말경 영국국의 정제능력은 8,580만톤/년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의 稼動率은 겨우 60% 정도이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시설폐쇄계획이 미미하여 정유능력超過分을 상쇄시킬 수 없는 상태이다. 1985년 이탈리아의 시설폐쇄는 2개 정유공장 650만톤/년에 그쳤다. 86년 폐쇄계획은 250만톤 정도이며, 향후 2년동안의 폐쇄계획은 330만톤이다. 따라서 80년대말경 이탈리아의 잉여정제능력은 1,170만톤에 이를 것이다.

프랑스는 현재 대규모의 잉여정제능력을 줄여나가고 있는 중이다. 85년에 정제능력의 변화는 없었으나, 올해는 Shell과 Mobil이 대규모의 공장폐쇄를 계획하고 있어서 86년 프랑스의 정유능력은 9,680만톤/년 수준으로 감소된다. EC통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시설폐쇄계획에 의해 EC전체의 정제능력이 1990년 5억7,500만톤/년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原油價인하, 달러貨의 약세 및 價格統制제도의 철폐에 따른 정유산업 재편성을 통해 86년 상반기동안 프랑스 정유산업은 1974년 이래 처음으로 8억8,600만달러의 이익을 올렸으나 在庫損失이 26억달러를 기록했다. 1974년부터 1985년까지 프랑스 정유산업의 손실은 118억달러이며 부채는 110억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 석유회사들은 지난 3월에 집결한 우익정부가, 석유산업 통제를 위해 지난 1928년에 제정된 法律中 규제항목등을 철회하여 他分野와 마찬가지로 석유산업에도 自由化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뿐만아니라 同法の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原油輸入 및 精油分野의 独占을 프랑스정부에 일임한 上記法律은 원래 튼튼한 정유산업을 형성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정부는 同法에 의거하여 Franais des petroles Nationale Elf Aguitaine, Esso SAF, BP, Shell Franu 및 Mobil France社등에 独占權을 부여하였는데 上記會社들은 지난 15년간의 정유산업損失의 대부분이 同法에 의한 規制條項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때는 방만한 규모이었으나 현재 精油産業은 石油의존도를 낮추려

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그 焦點을 맞추어 대응해가고 있다. 한편, 대규모의 原子力계획이 추진되어, 현재 프랑스 電力의 65%를 원자력이 供給하고 있다. 원자력에 의한 電力공급 擴大로 말미암아 프랑스의 B-C油 소비는 1973년의 3,620만톤에서 85년에는 860만톤으로 激減되었다.

가격自律化가 실시되었으므로 프랑스정유회사들은 종전과 달리 석유제품價格을 口際價格水準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새정부가 今年初부터의 油價下落에 따라 거의 倍이상 인상된 B-C油에 대한 稅金을 감면해줄길 바라고있다. 프랑스精油會社들이 規制解除를 원하는 條項은 다음과 같다. 즉 輸入원유나 제품의 2/3이상은 프랑스國籍船으로 수송되어야 한다는 조항과, 프랑스市場에 팔리는 제품의 90%가 EC나 프랑스에서 精製되어야만 한다는 條項이다. 이러한 규제조항이 큰 장에는 아닐지라도, 獨立系판매회사들이 프랑스나 유럽의 정제회사로부터 그들 판매량의 80%를 공급받아야만 되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프랑스석유관련업자들의 주장이다. 모든 規制項目과 차별이 없다면 프랑스의 석유수입은 작년수준인 8,000만톤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며, 따라서 더이상의 시설폐쇄는 不必要할 것이다.

下流部門의 구조적인 變化를 겪고있는 또 다른 유럽시장은 스페인이다. 今年初 EC에 加入함에 따라, 스페인은 政府所有의 Campsa社를 民營化하기 위한 6개년 계획에 착수하였으며 同社의 운영능력效率化를 위해 8億5,0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2,000개 이상의 업무가 간소화될 것이다. 또한 스페인에는 외국의 투자가 점차 增大되어가고 있다. 同國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보이는 Petroleos del Mediterraneo SA社에 Petroleos del Venezuela SA社가 5%의 株式밖에 갖고있지 못한데 반해, Petroleos Mexicanos SA社는 스페인의 Petroleos del Norte社의 株式를 34.28%나 보유하고 있다. 또한 UAE의 아부다비首長國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社도 Cia Espanola de Petroleos SA社의 株式를 20%나 보유하고 있다. ⊕

〈Oil & Gas Journal 1786. 8. 18〉